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건설에 앞장섭시다

홍 주 보

한양대학교 겸임 교수

한 여름을 어떻게 견딜 것인가? 선풍기·에어콘 등의 냉방 기기로 인한 여름철에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가 800~900만kW로 이는 북한의 전체 실질 발전량의 4배 정도이며, 국내 전체 발전량의 5분의 1 정도이다.

연간 약 10%의 전력 수요 성장은 선진국의 1~2%에 대비하여 5~10배 성장, 국가 에너지를 97% 이상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 나라, 수력 자원의 한계, 석유·가스·석탄 등 부존 자원이 없는 우리 실정,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도 실용화에는 극히 적은 양의 대체 에너지, 탄산 가스 등 환경 문제로 인한 환경 친화적 깨끗한 에너지의 필요성 등으로 상당한 기간은 평화적 원자력 이용 원자력 발전이 절대로 필요하다.

좁은 땅, 높은 인구 밀도, 생산·수출이 우리의 살 길인 구조에서 전기는 우리의 생명·생활이며 발전을 위하여는 고밀도 에너지인 원자력이 절대로 필요하다.

원자력 발전은 우리의 힘

로마클럽, 그리고 세계 석학의 모임에서도, 앞으로 장기간은 원자력이 전력의 상당 부분을 담당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원자 폭탄 투하로 항복한 가미가재국 일본, 예술·아름다움의 나라 프랑스는 전체 전력의 4분의 3 이상을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다.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의 최악의 사고 이후 지금은

다시 원자력 발전을 추가 건설코자 하는 옛 소련의 여러 나라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수입 전기에 의존하더라도 약 25년 후에는 원자력 발전을 중단코자 하는 독일 같은 나라가 있으나, 경제성과 저렴한 전기 생산, 산업의 원동력, 산업 생산 단가에 기여, 수출 경쟁력에 도움이 된 원자력은 공장 및 가정에서 그래도 우리의 힘이었고, 뒷받침이었다.

전기가 부족하면 어디서 가져올까? 북한에서 중국에서 일본에서 수입할 수 있을까?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부족한 전력을 인근의 타주에서 값비싼 전기를 수입(?)해서 견디고 있다. 우리의 북쪽 북한은 가장 부족한 것이 전기이다.

공장 가동 산업의 힘인 전력이 너무 너무 부족하다. 일본에서 수입이 가능할까? 역사 외곡 등의 지금 한·일 관계를 떠나서, 설령 해저 송전선을 이용한다 해도 그것을 어떻게 믿고 거기에 우리의 생명을 맡길 것인가. 전기야말로 우리가 만들어야 하며 아껴쓰고 수출품 생산에 써야 한다.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원자력발전소에 가보자. 과연 더러운 곳인가? 생활·출산이 위험할까? 전기 회사 운영자가 살고 있는 사택 지구를 가보자. 기형아·저능아만 자라고 있나?

수많은 송사를 당한 미국의 경우 쓰리마일아일랜드

발전소의 재판 결과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고 해서 모두 기각되었다. 일본·프랑스·스웨덴 폐기물 처리장 어디를 가도 관광 코스·낚시터·문화 생활 공간으로 되어 있다.

두고두고 자손만대 못 살 땅이라구? 미래의 우리 후손에게 혜택을 줄 확실한 사실을 틀린 얘기로 이해를 해서 시간과 경제적 손실을 더 이상 지속할 수는 없다.

방사성 폐기물이란 장갑·옷·양말 기계 일부에서 나온 물질 등이다. 밀폐된 통에 계속 감시하면서 관리하고, 앞으로는 유리화된 상태로 깊은 땅 암반 속에 격리하여 보관하고 어느 기간이 지나면 일반 흙·쓰레기같이 방사성이 소멸된다.

실제 국내의 원자력발전소의 운영은 세계에서 최상위이며, 설비 시설 용량은 세계 5위이다. 우리가 쓰는 전력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장소 결정을 이제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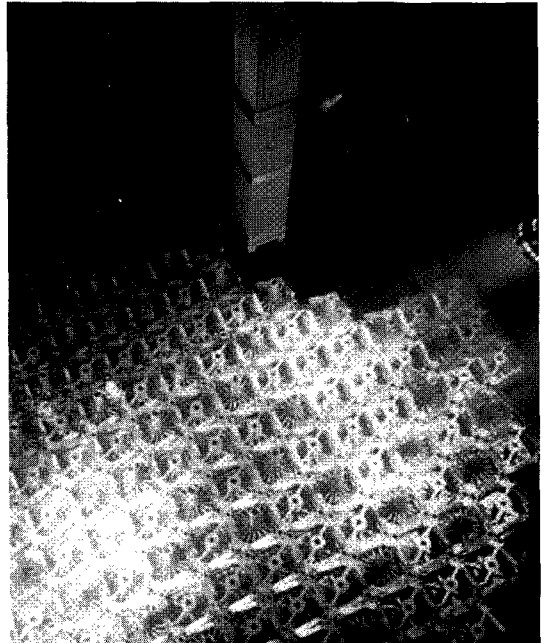
정치인·행정 책임자가 앞장서야

발전소에서 지방 공공 기관에서 대도시 호텔, 서울의 신문회관 등 여러 곳에서 전기 생산자·연구 기관·학계·홍보 기관 등 수없이 많은 기관이 설명회·공청회 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사용했다. 2001년 6월 말까지 유치 신청을 한 지방 행정 기관이 한 곳도 없었다.

매년 여러 형태의 선거는 있을 것이다. 정치인들은 당선을 위해서는 실제 위험하지는 않지만 반대로 얘기해야 득표할 수 있다는 생각은 지양해야 한다.

현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편하게 해주는 것이 정치, 정치인인 만큼 이제는 조용히 전기 회사 운영자·과학자의 의견에 귀 기울여 정치인이 크게 마음 열고 이 일을 해야 한다.

뒤에서 꼬면서 다른 것을 노리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너무나 하는 것이다. 수많은 모임과 공청회 만남이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으나 이제는 지역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



해서 큰 정치 의사 결정을 해야 한다.

여기에는 정당 정치인·지방 행정 책임자의 뒷받침·앞장섬이 절실하다. 1~2년 후에는 역시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으로 평가될 것이다. 지역의 경제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서 큰일했다 할 것이다. 일본의 예가 그렇다.

약 3000억원 지원, 건설 기간중 고용 창출 및 부대 경제적 이득, 2008년 이후 깨끗한 지역에서 연구원들과 더불어 지역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일본·프랑스·스웨덴 등과 같이 우리도 더 잘 살아보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라도 실제로 일하는 모두가 되자.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어려움을 무릅쓰고 경제 기반 조성을 한 것이 당시보다 지금에서야 더 빛을 보는 외국의 실례처럼 지금이라도 빨리 생각을 바꾸자. 정말 필요하다. 지금 해야 한다.

☞